

# 교사들의 마음 보듬는다

### 도교육청, '2023 교원치유지원 집단 프로그램' 추진

#### 교원 맞춤형·학교단위 등 두 가지로 구성·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사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기 위한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피해 경험을 치유하고 예방하고자 2023년 교원치유지원 집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집단 프로그램은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학교단위 교원치유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된다.

올해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은 79개교, 학교단위 프로그램은 50개교에서 접수했다. 도교육청은 선정 협의 등을 통해 맞춤형 집단치유 프로그램 48개교, 학교단위 프로그램 29개교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은

△미술심리치유 △음악치유 △영화치료 △원예치유 △스트레스 관리 △관계성증진 △정신분석 △모래놀이치료 △모래놀이치유 등 8개 과정이 있다. 그룹당 10명 이내 소그룹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당 3~5회기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미술심리치료·원예치료는 학교에서, 영화치료·관계성증진·정신분석·모래놀이치료는 상담기관에서, 음악치유·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상담기관 중 선택 가능하다.

이러 학교단위 교원치유 프로그램은 학교 주도로 계획을 수립 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1순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많은 학교 △2순위 학부모 민원, 학생 위기 사안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학교 △3순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치유와 교직원간 동료성 회복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단위학교는 오는 28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학교당 250만원 내외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라며 "교원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7년 미술심리치유프로그램 1개 과정으로 시작한 교원치유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는 8개 과정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353개교 3,481명의 교원이 집단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학교단위 교원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도 93개교 3,520명을 지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3년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대회 및 행동강령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 "청렴, 공직자 의무... 갑질관행 뿌리 뽑아야"

### 도교육청,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대회·행동강령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2층 강당에서 2023년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대회 및 행동강령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문화 조성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렴실천 다짐문 낭독 △청렴 실천 나의 다짐 카드 작성 △갑질 관행 근절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청렴실천 다짐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복합 제공 금지', '갑질 행위 금지' 등이다.

이후 청렴 실천 다짐을 낭독하며,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 특강과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행동강령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서 교육감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패요인

중 하나가 갑질 관행"이라며 "우리 청에서는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인격 비하 발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과 같은 갑질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렴 문화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공직자 본연의 의무"라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청렴에서부터 시작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불신하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청렴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농촌학교 체험의 장

### 진안 부귀초, 내달 8~12일 전주 에코시티 소재 초등학교 학생 대상 교환학습 형태로 추진

진안 부귀초등학교(교장 정성우)가 교환학습 형태로 농촌학교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진안 부귀초와 함께하는 5일간의 행복 체험'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5월 8~12일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일반적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환학습 신청은 21일부터 27일까지며, 해당 학교에서 안내한 QR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 학교는 작년에 학생 수가 41명이었지만 1년 사이에 12명이 감소해 올해는 전교생이 29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친구 관계 붕괴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우리 부귀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자는 목표를 갖고 이 행사를 기획했다.'

이에 앞서 부귀초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전북미래학교(혁신학

교)로 지정되는 등 작년부터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었다. 최근에는 가족 체험형 농촌유학 주거시설 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자체와의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교환학습 기간동안 일 반 교육과정 외에 특별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첫째 날은 고원길 걷기(운일반일일암 일원), 둘째 날은 체육교실, 찾아오는 음악회 셋째 날은 크리에이티브교실, 넷째 날은 연극, 미술 동아리, 마지막 날에는 학부모 초청 부귀 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 샌드아트 공연 관람 등을 마련했다.

한편 부귀초는 이 행사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18일은 전주화정초등학교, 20일은 전주자연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정성우 교장은 "이 행사를 통해 부귀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홍보를 통해 내년 신입생 유치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평균경쟁률 8.6대 1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주관하는 2023년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에 총 1,910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14일 3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개 직종 221명 모집에 총 1,910명이 지원해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교무실무사로 5명 모집에 790명이 응시해 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교육복지사는 19.8대 1, 특수교육지도사(일반)는 14.4대 1, 특수교육지시(장애인)는 4대 1, 조리실무사는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3일 치러지며, 시험장소 등은 5월 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e.go.kr>) 고시/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5~26일 이틀간 자격증 등 제출 서류를 받아 6월 17일 2차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 발표할 예정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은 9월 이후 교육공무직원 장년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는 교육기관에 배치된다. /정은성 기자

# 반려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방향 모색

### 오늘 전북대 진수당서 '펫 그린바이오 포럼' 개최 동물의료복합비즈니스센터 구축 방안 등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8일 진수당에서 반려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방향 모색을 위한 '펫 그린바이오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을 비롯해 양오봉 총장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 김인태 전주부시장, 최대식 익산부시장, 김

형우 정읍부시장, 이민숙 임실부군수 및 반려동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에는 오홍근 (주)펫팩 대표, 박인규 카이스트 교수, 박철 전북대 교수,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하며, 전라북도 반려동물산업 공동추진단장인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정은성 기자

소병훈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비전을, 4개 시·군 부단체장들은 각 시·군의 반려동물 산업 비전을 제시한다.

양오봉 총장은 동물의료복합비즈니스센터 구축 방향에 대해, 송승표 전북대 교수는 반려동물의약품산업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소방펌프 시스템의 내진 설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 우석대 오창수·김서영 대학원생, SCI 논문 게재

#### 소방시설 내진 설계 신뢰성 향상 방안 제시

우석대학교 오창수·김서영(박사과정 3차수) 대학원생의 공동 연구 논문이 SCI 저널인 'Advances in Engineering Software' 4월호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대한 연구로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창수·김서영 대학원생은 "지도해 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하성 주임교수는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한 오창수·김서영 대학원생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원생이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국제교류원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전주비전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2023년 비전한국어센터 통합기 문화체험으로 최근 근산 사천 등을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베트남 미안파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농업기술 경험을 위한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변화 인지 및 친화적 예코 시뮬레이션 등을 경험했다.

베트남에서 온 응웬비우 유학생은 "비전대는 국제교류원의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과 전라북도를 더욱 더 잘 이해하게 해줬다"며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심신의 리프레쉬를 느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13~14일 이틀 간 태권도원에서 무주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본공동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본공동교육

###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 무주 태권도원 찾아

전주비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13~14일 이틀 간 태권도원에서 무주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본공동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무주군이 주관하고, 전주비전대학 산학협력단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무주군 지역청년들의 활력 증진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본공동교육은 지역특화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명함지갑 만들기 △좋은 목소리와 지속가능한 스피치 스킬 △직장적응 멘토링 및 조별 팀활동 △직장인을

위한 MY MBTI △인문학강의 '나의 삶'을 하는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공동교육에 참여한 전효진씨는 "관내 청년들과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김동필 과장은 "무주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본공동교육을 통해 청년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무주=전문성 기자

#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는 지난 14일 LINC 3.0 사업단과 공동으로 산학협력단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업무 기획력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효과적인 공문서 및 기획 문서 작성법, 효과적인 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 실무 노하우 등 정부정책의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LINC 3.0 사업단 최지윤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LINC 3.0 사업의 비전과 미션 달성에 필요한 직무 능력의 향상과 함께 노하우 습득 등 다방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공동 교육을 통해 LINC 3.0 사업단과 산학협력단 구성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한 업무 스킬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LINC 3.0 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